

■ 제주 한부모 가족 2018년 기준 3047세대... 10일 사례 발표

3가구중 2가구 국민기초수급 대상

몇천원 차이로 지원 '뚝' "생활안정·복지증진위해 지원센터 신속 설치 절실"

#제주에서 5살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 박관희씨는 최근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추가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했다. 지원금만으로 생활할 수 없어 일을 시작했는데 '몇 천원' 차이로 중위소득에 걸리면 추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거라는 공무원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중위소득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려고 주민센터와 시청 등을 돌며 문의를 했지만 "담당자가 휴가 중", "산출 기준이 달라 알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결국 추가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했다.

박씨는 "나에게 추가 양육비는 큰 돈이지만 계속 지원만 받고 살 수는 없어 양육비를 포기하고 일을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이 만큼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난 10일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한부모 가족의 날' 세미나 모습. 송은범기자

#30대 여성 한솔씨는 10년 전 대학을 다니던 중 덜컥 임신을 했다. 미혼모로 살아갈 미래가 암울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한씨는 배에 봉대를 감아 악착같이 학교와 일을 다녔다. 하지만 부푼어 오르는 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됐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미혼 임신부 지원 시설인 '애서원'에 입소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애서원 등의 지원으로 학교를 다시 다니고, 저녁에는 일도 하면서 생활은 안정을 찾았고, '집'이라고 생각했던 뱃 속의 아기는 어느새 '축복'으로 변해 한씨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과정에서 미혼모

라는 이유로 차별과 왜곡된 소문이 퍼져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한씨는 "처음에는 내가 한부모이기 때문이라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주변시선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아이를 낳은 지 10년이 지난 현재는 '차별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열린 '한부모의 날 세미나'에도 참석해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정수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영실 애란원

원장의 '위기임신출산과 양성평등사회', 임애덕 애서원 원장의 '미국과 한국 내 한부모에 대한 태도 차이에 관한 비교' 주제 발표와 박관희·한솔씨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오영희 제주도의원, 김병성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장학사, 강경남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오영희 의원은 "제주도 내 한부모 가족은 2018년 기준 3047세대이며, 이 가운데 국민기초수급 대상이 2103세대 이르고 있다"며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아이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오 의원은 "서울과 경남 등 다른 지역은 이미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 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제주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센터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정활동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 CCTV 7년새 1000% ↑

2012년 663대 → 2018년 6461대로 폭증

제주에 설치된 CCTV가 7년사이 무려 10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CCTV는 2012년 663대에서 지난해 6461대로 7년새 1020%나 늘어났다. CCTV가 늘어난 계기는 지난 2013년 3월 6일부터 광역단체 가운데는 최초로 제주에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면서다.

경찰은 CCTV 확대에 의해 범죄 발생률이 낮아지고, 범인 검거율은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인구·차량·관광객·외국인 등이 폭증해 치안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범죄 지표는 향상됐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 제주도 인구는 58만 7000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6만 7000명으로 무려 8만명이 늘었다. 또 관광객은 969만명이던 것이 2018년에는 1475만명으로 52% 증가했으며, 차량은 29만4000대에서 55만 3000대로 88% 많아졌다.

반대로 5대 범죄 발생률은 2012년 9990건에서 2018년 8727건으로 12.6% 줄었고, 범인 검거율은 2012년 55.5%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79.9%로 크게 향상됐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2014년부터 범죄예방 고위험지역에 대한 '셉테드(CPTE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셉테드는 도시 환경을 바꿔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을 말한다. 어두운 골목길 CCTV나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외진 곳의 담벼락을 없애 주민들의 자연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셉테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공동체 안전을 위한 셉테드 적용' 세미나에서 토론회에 나선 김형근 제주청 생활안전계장은 "CCTV 설치 시 민원이 들어오는 순서로 이뤄지는 등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소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각도 등이 고려된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CCTV 말고도 셉테드 시설 역시 조성을 해놔도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흉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계장은 "셉테드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범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체계적인 범죄예방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술 취해 흥기 휘두른 네팔 노동자 집유 5년

술에 취해 직장동료에게 흥기를 휘두른 네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팔인 A(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3시 50분쯤 제주도 한 공장 숙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한국인 B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상체를 입힌 혐의를 기소됐다. 이어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또 다른 직장동료의 목살을 잡고 흥기를 찌르려고 했지만 네팔인 동료가 손목을 붙잡아 말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흥기를 휘두르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지만 제주주민센터와 네팔교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양중맞은 꼬마들의 댄스... 영키즈페스티벌 12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열린 제주청소년드림페스티벌 영키즈페스티벌 결선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양중맞은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국제대 인근 대규모 환승주차장 조성

제주국제대 정문 인근에 대규모 환승주차장이 조성된다. 제주도는 5·16도로변 제주국제대 정문 앞 일원 3필지 1만4396㎡(약 4300평)를 매입, 앞으로 14억9000만 원을 투입해 환승주차장 및 버스회차지를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뤄진다. 환승주차장 규모는 대형버스 27대, 승용차 125대, 장

에인 차량 10대, 경차 26대, 전기차 11대 등 199대에 이른다. 여기에 휴게실과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이와 함께 인근 한라산이나 사려니숲길 등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백영기기자 haru@ihalla.com

금은방 털려던 30대 중국인 검거

제주에서 금은방을 털려던 30대 중국인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미수 혐의로 중국인 후보(34)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후씨는 10일 오전 2시25분쯤 제주도 중앙로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 파손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후씨는 출입문을 파손하기 위

해 70cm 가량의 철근 2개와 귀금속을 담은 빈 쇼핑백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마침 후씨의 행동을 이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이날 오전 2시41분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후씨는 지난달 27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으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택시기사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상습무전취식 30대 최고량

서귀포경찰서는 12일 상습사기(무전취식)혐의로 지명수배된 A씨(3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의 한 가요방에서 시가 8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뒤 대금을 내지 않는 등 주점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17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범 죄를 저지르고 출석 요구에도 의도적으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 예초기 / Brush Cutter • 잔디깎이 / Lawn Mower • 체인톱 / Chain Saw • 전정기 / Hedge Trimer • 송풍기 (낙엽청소) / Blower

잔디깎이 벌초기계 체인톱

잔디깎이 : 동력(엔진·전기), 수동, 탑승식
 예초기 : 견착식, 배부식(2단 분리형 일체형)
 체인톱, 수백전정기, 분무기, 양수기, 소형엔진, 파쇄기

Green Clean!

정원산림관리 장비, 농업산업기계, 소형엔진 판매 · 정비

해륙기계 722-3414-5 757-0165

이도동주민센터 KAL호텔 상성로 상성현 제주시 상성로 35(일도2동) 자연사박물관 상성현 풍족 다리명 (민속자연사박물관 앞)

EIDER 아이더 제주점 스타일러쉬 아웃도어

WALK · WEAR · ENJOY Festival 신상 전품목 15% 우대

기획·이월제품 40~60% · 단체복 주문시 각종 할인 우대 · 상품권 판매

T. 064)723-0934 모든 주차장 무료주차

우리는행 · 천년터위 · 관덕역 · 산업은행 · 동문로터리